

**1. 비교 우위**

**정답 ③**

③ <상황 2>의 경우 갑국은 Y재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갖는다. 기회비용이 적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① <상황 1>의 경우 갑국은 비교 우위 상품 X재를 100개 생산한다. ② 갑국과 을국 모두 X재 1개 소비의 기회비용은 Y재 2개이다. ④ <상황 1>의 경우 X재 1개는 Y재 2개와 교환되고 <상황 2>의 경우 X재 1개는 Y재 1/2개와 교환된다. ⑤ <상황 1>의 경우 X재 50개와 Y재 100개를 소비할 수 있고, <상황 2>의 경우 X재 50개와 Y재 75개를 소비할 수 있다.

**2. 연관재 관계**

**정답 ②**

A재와 B재는 대체재 관계, A재와 C재는 보완재 관계이다. <상황 1>의 경우 A재의 공급은 증가하고 <상황 2>의 경우 A재의 공급은 감소한다. ② A재의 가격 하락으로 C재는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한다. ① A재의 가격 하락으로 B재의 수요는 감소하여 가격이 하락한다. ③ A재의 공급 감소로 A재의 가격은 상승한다. ④ A재의 가격 상승으로 B재의 수요는 증가하여 거래량이 증가한다. ⑤ C재 공급은 가격에 완전 비탄력적이므로 수요의 변화에도 판매량은 변함없다.

**3. 수요의 가격 탄력성**

**정답 ④**

④ 갑의 수요량 변화율은 5%이고, 병은 0%이다. 을의 수요량 변화율은 5%보다 작고, 정은 5%보다 크다. 병의 수요량 변화율이 가장 낮다. ① 갑의 X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이다. ② 을의 X재 수요는 가격에 비탄력적이다. 정은 X재 수요는 가격에 탄력적이다. X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을보다 정이 크다. ③ 가격이 변화하기 전 을과 정은 수요량을 알 수 없고, ⑤ 갑~정의 가격 변동 이전의 지출액을 알 수 없으므로 판단할 수 없다.

**4. 실업률과 고용률**

**정답 ④**

ㄱ. 비경제 활동 인구가 취업자가 되어 고용률은 상승한다. 경제 활동 인구는 증가하는데 실업자는 변함없어 실업률은 하락한다. ㄴ. 실업자가 취업자가 되어 고용률은 상승한다. 경제 활동 인구는 변함없는데 실업자가 감소하여 실업률은 하락한다. ㄷ. 비경제 활동 인구가 실업자로 변한 경우 취업자 수가 변함없으므로 고용률은 변함없다. 비경제 활동 인구가 실업자로 변하여 실업률은 상승하였다. ㄹ. 실업자가 비경제 활동 인구가 되므로 취업자 수가 변함없어 고용률은 변함없다. 실업자가 비경제 활동 인구가 되어 실업자 수와 경제 활동 인구 수가 모두 감소하였다. 실업자 수 변화율이 경제 활동 인구 변화율보다 더 커 실업률은 하락한다.

**5. 총수요의 구성**

**정답 ⑤**

갑국의 총수요 중 국내 생산액과 수입액은 표와 같다.

구분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2014년 국내 생산액	112	35	54	40
2014년 수입액	28	15	6	0
2015년 국내 생산액	126	56	30	80
2015년 수입액	54	14	0	0

ㄷ. 2014년의 순수출은 -9억 달러, 2015년의 순수출은 12억 달러이다. ㄹ. 2015년의 정부 지출은 감소하였으나 소비, 투자, 수출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갑국의 물가 상승 요인이다. ㄱ. 2014년의 수입액은 49억 달러, 2015년의 수입액은 68억 달러이다. ㄴ. 2014년의 GDP는 241억 달러, 2015년의 GDP는 292억 달러로 2015년이 51억 달러 많다.

**6. 경기 변동**

**정답 ⑤**

A는 경기 침체 상황, B는 경기 과열 상황이다. ⑤ 공개 시장에서 국·공채 매각 규모 확대는 경기 과열 시 필

요한 정책이다. ①, ②, ③ 경기 과열 시, ④ 경기 침체 시 필요한 정책이다.

**7. 상품 수지**

**정답 ③**

구분	상품 수지	갑국 수입액	갑국 수출액
2014년	200억 달러	200억 달러	400억 달러
2015년	20억 달러	300억 달러	320억 달러

③ 을국의 수입액(갑국의 수출액)이 감소했기 때문에 을국 국민의 소득 증가는 을국 수입액 변화의 요인이 되기 어렵다. ① 갑국의 재화 수입액은 2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늘어났다. ② 을국의 상품 수지는 200억 달러 적자에서 20억 달러 적자로 개선되었다. ④ 갑국과 을국 사이에서만 교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갑국의 수입액이 을국의 수출액이다. ⑤ 갑국의 재화 수입액 변동 폭은 100억 달러, 재화 수출액 변동 폭은 80억 달러로 수입액 변동 폭이 크다.

**8. 환율 변동**

**정답 ①**

ㄱ. 환율이 3% 하락하였다면 6%의 주식 투자 수익의 3%가 줄어든다. 환율의 하락으로 인해 주식 투자에 따른 수익보다 은행 예금 이자가 더 높다. ㄴ. 환율이 상승하면 주식 투자에 따른 수익에 환율에 따른 이익이 더해져서 은행 예금 수익률보다 더 높아진다. ㄷ. 환율이 6% 상승하였다면 주식 투자 수익에 따른 투자 수익률은 12%를 넘는다. ㄹ. 환율이 6% 하락하였다면 환율 하락에 따른 효과로 1년 만기 금리보다 증권 투자 수익률이 낮다.

**9. 소비자 잉여**

**정답 ②**

② X재 가격이 60만 원일 때 잉여가 발생하는 것은 A와 갑 2명이다. ① X재 가격이 50만 원일 때 소비자 A, B, C가 구매하려 하고, 공급자 갑이 공급하려 할 것이다. ③ X재 가격이 70만 원일 때 거래량은 1개이고, 생산자 잉여는 갑의 20만 원이다. ④ X재 가격이 70만 원일 때 A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이 70만 원이므로 소비자 잉여가 발생하지 않는다. ⑤ X재 가격이 50만 원일 때와 60만 원일 때 사회적 잉여는 20만 원으로 같다.

**10. 가격 규제 정책**

**정답 ⑤**

⑤ Y재가 대체재라면 Y재 가격 하락으로 X재 수요는 감소한다. 최저 가격 P<sub>1</sub>에서의 거래량은 새로운 균형 가격 P<sub>2</sub>에서의 거래량보다 작다. ①, ②, ③ Y재가 보완재라면 Y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X재 수요는 증가한다. 시장 균형 가격이 P<sub>0</sub>일 때 정부의 가격 규제가 유효하고 가격이 상승한 P<sub>2</sub>에서 가격 규제가 효과가 없다면 P<sub>1</sub>은 최저 가격이다. P<sub>2</sub>는 P<sub>1</sub>보다 높다. ④ Y재가 대체재라면 정부 규제 가격 P<sub>1</sub>은 최고 가격이다. 최고 가격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11. 금융 상품의 이해**

**정답 ②**

ㄱ. 채권은 만기가 있으나 주식은 만기가 없다. ㄷ. 주식은 배당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채권은 배당 수익이 발생할 수 없다. ㄴ. 주식과 채권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ㄹ. 주식과 채권은 모두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12. 외부 불경제**

**정답 ①**

ㄱ. 사적 비용에 따른 공급이 사회적 비용에 따른 공급보다 더 큰 외부 불경제 상황이다. ㄴ. 실제 생산은 P<sub>2</sub> 가격에서 Q<sub>2</sub>만큼 이루어진다.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Q<sub>1</sub>이므로 Q<sub>1</sub>보다 더 많이 생산된다. ㄷ.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 접종은 외부 경제에 해당한다. ㄹ. 정부가 외부 불경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한을 통한 직접 규제나 조세 부과를 통한 간접 규제 등이 필요하다.

**13. 경제 주체**

**정답 ⑤**

생산물 시장에서 공급의 주체인 A는 기업, B는 가계이며, C는 정부이다. ㄷ. 화폐의 흐름은 기업에서 가계

로 향한다. ㄹ. 정부는 가계나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한다. 세금은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을 거치지 않는다. ㄱ. 생산 요소 시장에서 공급자는 가계이며, 수요자는 기업이다. ㄴ.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 주체이다.

**14. 기본적인 경제 문제**

**정답 ②**

ㄱ. (가)는 소형 자동차 생산과 고급 자동차 생산을 고민하는 것으로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 ㄷ. 경제 문제는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발생한다.

**15. 환율 변동**

**정답 ②**

② 3월에는 달러 대비 을국의 화폐 가치가 하락하였다. 을국 통화의 대(對) 달러 환율은 상승하였을 것이다. ① 2월에는 달러 대비 갑국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달러 대비 을국 화폐 가치는 상승하였다. 따라서 갑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 ③ 1월에는 달러 대비 갑국 화폐의 가치가 높아졌다. 갑국 외환 시장에서 달러 대비 환율은 하락하였고, 갑국 시장에서 미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은 높아졌다. ④ 을국은 2월에 화폐 가치가 높아졌다. 미국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을국 기업은 유리해진다. ⑤ 2월과 3월 갑국의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하였으므로 미국 여행 부담은 늘어났을 것이다.

**16. 소득세 제도**

**정답 ⑤**

⑤ (가)가 세율이라면 소득이 W를 초과하는 사람의 소득세액은 A보다 B를 적용하는 경우가 작다. ① (가)가 세액일 경우 B는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금을 걷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가)가 세율일 경우 B보다 A를 적용할 때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 ③ (가)가 세액일 경우 A의 기율기가 커질수록 고소득자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액의 증가에 따라 계층 간 소득 격차는 감소하게 된다. ④ 과세 대상 소득이 W일 경우 (가)가 세액이라면 A, B 상관없이 동일한 세액을 징수하게 된다.

**17. 통화 정책**

**정답 ③**

ㄴ, ㄷ. 경기 과열을 우려하여 지급 준비율을 인상할 경우 총수요 감소로 물가 하락이 나타나고 실질 GDP가 줄어들 수 있다. ㄱ. 정부의 세출 변화는 중앙은행의 지급 준비율 변화와 무관하다. ㄹ. 지급 준비율 인상으로 인해 총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총수요 감소는 총수요 곡선의 좌측 이동으로 나타난다.

**18. 배제성과 경합성**

**정답 ⑤**

⑤ A재는 경합성이 없는 재화로 희귀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① A재는 공공재로 주로 정부에서 공급한다. ② C재는 사적 재화로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③ A재와 B재는 경합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제한하지 않는다. ④ B재, C재는 배제성이 있어 희소성을 갖는다.

**19. 합리적 선택**

**정답 ①**

① 영화 관람과 데이트 모두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영화 관람의 기회비용은 데이트의 순편익이다. ② 영화 관람료는 친구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매물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데이트의 기회비용은 영화 관람의 편익이다. ④ 데이트의 편익이 1만 원이 넘지 않더라도 영화 관람의 편익보다 높으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⑤ 데이트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영화 관람의 순편익은 음(-)의 값을 갖는다.

**20. GDP와 물가 변동**

**정답 ④**

④ t년의 명목 GDP는 100억 달러, t+1년은 120억 달러, t+2년은 121억 달러이다. ① t+1년의 GDP 디플레이터가 t+2년보다 크다. t+1년의 물가가 더 높다. ② t년과 t+1년의 실질 GDP는 같다. 두 해의 경제 규모는 동일하다. ③ t+2년에는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크다. ⑤ t+1년의 실질 GDP 증가율은 0%, 명목 GDP 증가율은 20%이다.